새빛교회를 소개합니다

1. 새빛교회의 가치

1)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는 교회

골 1:20-22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 **새빛교회의 가치는** 복음의 방향성의 재정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텐덤, 즉 힘의 원리로 기독교로 세상을 개종 시키겠다는 비 복음적인 가치는 4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변함 없이 참된 복음의 가치를 왜곡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의 소비주의적 기독교는 세속적인 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를 더이상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가진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으며, 교회를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즉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아담의 죄악으로 깨어진 자연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총체적회복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4)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좁은 의미의 구원** 뿐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형상(정체성)의 회복, 즉 짜데카(공의), 샬롬(평화),

토브(선함과 아름다움)의 회복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경영하는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까지도 복원되어 그동안 인간의 탐욕으로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 까지를 아우르는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새빛교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비록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다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함께 기뻐하고 뛰어노는 공동체가 새빛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부유한 번영의 넓은 길을 추구해 왔던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 솔로몬의 왕정체제, 로마의 제국주의, 그리고 현대의 소비주의를 떠나, 급진적인 사랑과 환대로 희생과 십자가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며,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2. 핵심 가치의 구체적 실천

1) 환대와 사랑
2) 제자도의 삶
3) 공의, 평화, 아름다움의 회복(짜데카, 샬롬, 토브)

3. 2024 년도 새빛교회의 중점사역

1) 셀 모임의 정착과 활성와
2) 사역원, 사역팀을 중심으로 한 팀사역
3)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예배
4) 문화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뮤지컬, 워십컨퍼런스, 오케스트라, 연합찬양모임)
5) 이웃의 회복을 위한 사역(Holywin Festival, 홈레스, 구제사역)

4. 침례교회에 대하여

1) 침례교회의 신앙고백

역사적으로 볼 때, 침례교회의 성격을 형성해 온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 강조점 들이 있다. 이것들은 성경이 강조하는 교훈들로 이들 중 일부는 개혁(장로)교회에서, 어떤 것은 감리교회에서, 어떤 것은 다른 자유교회(Free Church) 모임들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BAPTIST"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침례교인의 7 가지 신앙" 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다음의 내용들은 침례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교파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 : Believer's Priesthood (신자의 제사장직)
A :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자치적 지역교회)
P : Primacy of Scripture (성서의 절대적 권위)
T : True believers only in the Church
(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I : Individual Competency of the Soul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S : Separation of Church and St 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
T : Two Ordinances (두 가지 거룩한 의식)
1)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2) 기념적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as Memorial)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첫째,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목회자나 일부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치적 지역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인도해 가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명령의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침례교회는 지역교회가 재정, 행정 등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지방회나 총회는 교제와 선교 등을 위한 협력이 주 목적이다.

셋째, 성서의 절대적 권위는 침례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침례교회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신앙과 행습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교회 내 참신자만의 회원권은 교회의 회원권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헌금, 봉사 등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임을 믿기 때문이다.

다섯째,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에 따라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섬김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침례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여섯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개인의 자율성의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조차도 교회를 지배하거나 억압할 수 없으며, 교회 역시 국가권력을 이용해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두 가지 거룩한 의식이라 함은 침례교인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주장하는 의식은 신자의 침례와 기념적 주의 만찬 두 가지 뿐이라는 것이다. 침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 들인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의식이며,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의식이라고 믿는다.

2) 침례교회의 침수 침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보통 다른 교단에서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의식을 하지만, 침례교단에서는 보통 전신을 물에

담그는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의 성경 원어는 '밥티스마'(baptisma)입니다. 동사로는 '밥티조'(baptizo)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물속에 잠긴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 침례의 세 가지 의미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는 신앙고백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의미하며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로마서 6 장 3 절~11 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입니다.

침례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육체가 죽어 땅 속에 파묻힐 것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입니다. (로마서 6 장 3 절~5 절)